



성사재인(成事在人) 인계관(人界觀)에 나타난 동서양 인간관(人間觀)의 재활성화

Revitalization of East-West Views in Seongsajaein

연구 배경 및 목적

- **왜 동서양 인간관의 재해석이 필요한가?**

- 서양의 구성주의적 인간관과 동양 전통 인간관의 한계 봉착
- 현대 문명의 위기와 새로운 통합적 인간관 요구

- **대순사상 인계관의 현대적 의의**

- 실체와 속성을 통합하는 인간관 제시
- 천지인 삼계의 역동적 재구성과 인간 역할 재정립

- **주요 연구질문 및 방법론**

- 유불선과 서구 구성주의 인간관의 체계적 비교 분석
- 대순사상 내 조리(調理)·기화(氣化) 개념을 통한 동서 통합 가능성 탐색

대순사상의 인계관 개념 소개

1 인계관(人界觀)의 정의와 철학적 배경

인계관은 인간세계에 대한 관점으로, 대순사상에서는 유불선 사상과의 연계를 통해 인간의 본질과 가치를 규정합니다. 「전교」에 나타나는 유불선은 인간 교육과 정의 일환으로 이해됩니다.

2 인간과 천지(天地)의 관계

대순사상에서 인간은 천지의 최령자로, 천지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존재합니다. 이러한 관계는 천지보은(天地報恩)이라는 핵심 개념으로 표현되며, 인간은 천지에 보은함으로써 도통을 이룰 수 있습니다.

3 신명(神明) 중심성

대순사상은 기존 유불선과 달리 신명의 실체성을 강조합니다. 신(神)이 가진 속성뿐만 아니라 실질적 존재로서의 신명을 중시하며, 인간과 신명의 조화로운 관계를 통한 해원상생을 추구합니다.



동양 인간관 – 유불선 사상 분석

유교(儒) - 이조(以詔)

이중긍정의 논리: "X는 X이고 ?X는 -X" 친구(X)는 친구(X)고, 원수(-X)는 원수(-X) 내부적 초월과 범절(範節) 강조, 도덕 체계 확립

욕대(浴帶) 이조(以詔)

불교(佛) - 적멸(寂滅)

이중부정의 논리: "X는 X도 -X도 아님" 친구도 원수도 없는 일체 공(空) 추구
일체 대립의 초월, 중도(中道)와 지각(知覺) 강조

양생(養生) 적멸(寂滅)

도교(道) - 허무(虛無)

역설적 논리: "X는 -X이고, -X는 X" 원수(-X)는 친구(X), 친구(X)는 원수(-X)
대립 관계의 대칭성, 허령(虛靈)과 조화(調和) 강조

포태(胞胎) 허무(虛無)

12운성과 유불선의 연관성

구분	선(仙)	불(佛)	유(儒)
12운성	포태(胞胎)	양생(養生)	욕대(浴帶)
특성	조화(調和)	형체(形體)	범절(範節)
논리구조	X는 -X -X는 X	X는 X도 -X도 아님	X는 X -X는 -X
대표인물	노자	석가	공자
마음의 작용	허령(虛靈)	지각(知覺)	신명(神明)

대순사상에서는 유불선 각각의 속성과 더불어 **실체적인 신명 개념**을 강조하며, 유불선의 허무적멸이조는 12운성에서 포태양생욕대의 다음 단계인 **관왕(冠旺)**으로 통합됩니다. 대순사상은 관왕의 도(道)로서 삼교의 통합적 이해를 제시 합니다.

12운성과 유불선의 연관성

● 12운성과 유불선 사상의 대응 구조

대순사상에서 나타나는 12운성은 유(儒)·불(佛)·선(仙) 삼교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며, 특히 포태, 양생, 욕대는 선, 불, 유 의 허무, 적멸, 이조와 대응됩니다.

● 허령(虛靈)·지각(知覺)·신명(神明) 구조

성리학의 마음 구조인 허령·지각·신명은 각각 천지인에 대응하며, 선불유의 허무·적멸·이조와 평행관계를 이룹니다. 이는 본체·작용·주체의 기능적 분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 속성중심에서 실체중심으로

기존 동양 사상이 속성적 요소를 강조한 반면, 대순사상은 실체성을 강조하여 동서양 인간관의 새로운 통합을 제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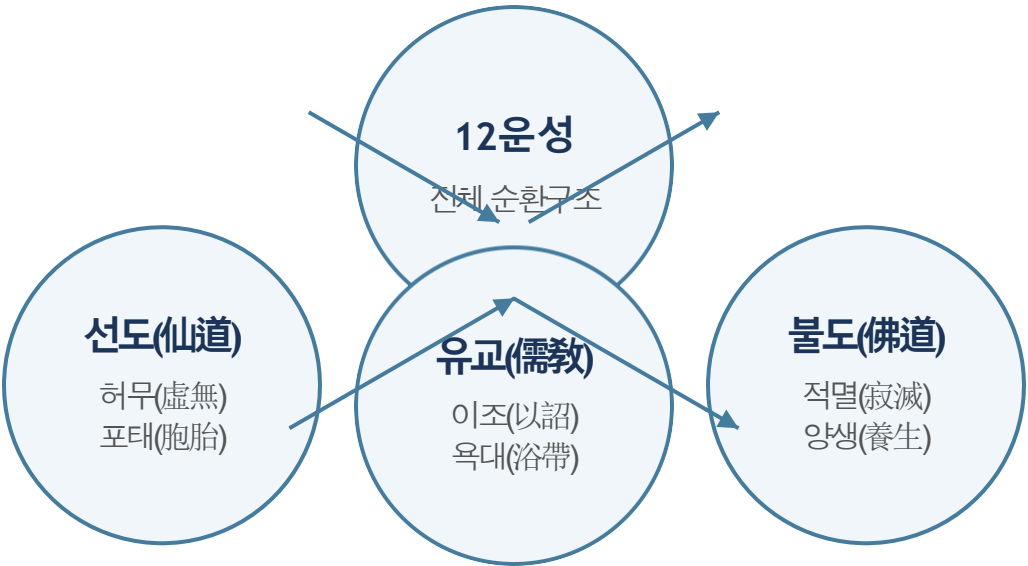
구분	선(仙)	불(佛)	유(儒)
12운성	포태	양생	욕대
특성	허무	적멸	이조
마음 구조	허령	지각	신명

● 천지의 기운과 유불선의 관계

선도의 허무, 불교의 적멸, 유교의 이조는 각각 천지의 포태, 양생, 욕대라는 기운을 받아 형성되었으며, 12운성 중 관왕 단계에서 통합됩니다.

● 『전경』의 핵심 구절

“受天地之虛無仙之胞胎
受天地之寂滅佛之養生
受天地之以詔儒之浴帶”



서양 근대 인간관 – 구성주의 전개

1 데카르트~칸트의 구성주의 개념

근대 서양의 구성주의는 신중심에서 인간중심으로 세계관의 전환을 이루었습니다.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로 시작하여, 칸트의 "인간의 오감을 통해 세계를 구성한다"는 사상으로 발전했습니다.

2 신관에서 인간(감각)의 실체론적 전환

"신은 죽었다"라는 표현으로 대변되는 서양 근대는 유일신이 사리진 자리에 인간의 오감이라는 실체를 대체하였습니다. 세계는 각자 스스로 구성하는 것이라는 구성주의 세계관은 자연을 지배·조작하는 실체적 세계관으로 발전하였습니다.

1637년

데카르트 (René Descartes)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 인식론적 전환의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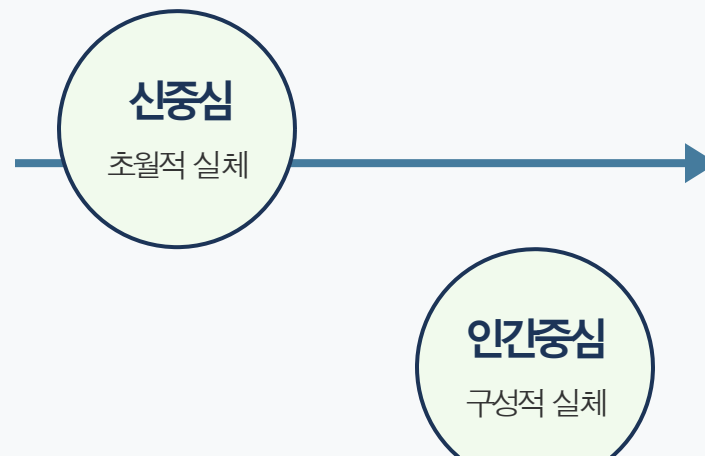
1710년

버클리 (George Berkeley)

"존재함은 지각됨이다" - 관념론의 전개

1791년

서양 인간관의 패러다임 전환



서양적 구성주의의 특징

- 세계를 계량화, 도구화하는 실천적 관점
- 감각과 이성에 기반한 지식 구성
- 자연을 인간의 인식 대상으로 객체화
- 실체 중심적 존재론 (vs. 동양의 속성 중심)

동서양 인간관 비교 분석

비교 항목	동양 인간관	서양 인간관	대순사상 인간관
인간의 본질	속성적, 관계적 (허무·적멸·이조)	실체적, 독립적 (자아 중심)	속성과 실체 통합 (신인조화)
신(神)과의 관계	내재적, 기화(氣化) (음양오행 원리)	초월적, 대립적 ("신은 죽었다")	실체적 신명과 공존 (천지보은)
사유 방식	상관적 사유 조리(調理)	구성주의적 사유 데카르트칸트	해원(解冤) 중심 실천적 수행
세계관	12운성, 천지인 (균형과 조화)	자연의 계량화 (도구화, 지배)	삼계의 재정립(가변성, 호환성)

동서양 인간관의 근본 차이

- 동양: 내재적관계적 접근, 인간·자연·신명 조화 강조
- 서양: 실체적·도구적 접근, 인간 중심 세계 인식
- 동양은 속성 치중, 서양은 실체 치중의 편중성 한계

대순사상의 융합적 인간관

- 천지인 상관성과 실체적 신명 개념 결합
- 조리·기화와, 실체·속성의 통합적 이해
- 천지보은과 해원상생을 통한 우주적 조화 실현

대순사상 인간관의 차별성

대순사상은 동양의 속성론적 관점과 서양의 실체론적 관점을 통합하여, 인간이 천지와 의 관계 속에서 보은과 해원을 통해 신인조화를 이루는 주체적 존재로 정립합니다. 이러한 관점은 현대 문명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인간관의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조리(調理)와 기화(氣化) 개념 해설

調 조리(調理) - 인간의 중재적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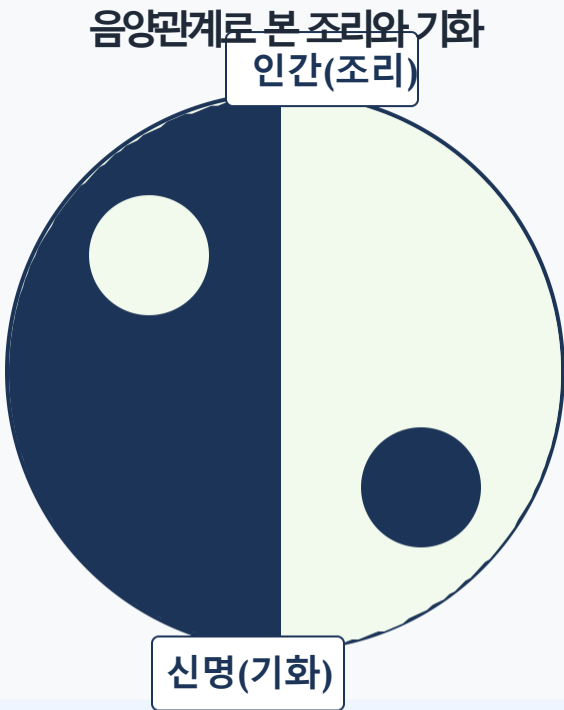
조리는 중심에서 건곤을 통제하는 방법으로, 인간이 토(土)의 위치에서 주변 사물을 중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이 이(理)를 가진 존재로서 정의와 공감으로 세계질서를 조절하는 역동적 역할을 강조합니다.

氣 기화(氣化) - 신명의 작용 원리

기화는 신명(神明)이 기(氣)를 통해 작용하는 원리로, 음양본적 합리성에 기초한 상반적 사유를 나타냅니다. 동양에서 신명은 인간과 대립적 존재가 아닌 음양본계로 인간과 결합 가능한 존재로 이해됩니다.

동서양 인간·신 관계 비교

구분	동양 조리·기화 관점	서양 구성주의 관점
인간과 세계의 관계	내재적·관계적 (인간이 중심에서 세계 중재)	객관적·도구적 (인간이 세계 외부에서 구성)



소강철의 신인관계 설명

소강철은 동양의 조리(調理)·기화(氣化) 관계를 중(中)과 토(土)로서의 인간과 사상(四象)과 주변으로서의 신의 배치로 설명했습니다. 이는 서양의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데카르트적 구성주의와 근본적으로 다른 세계관을 보여줍니다.

천지보은의 천인관계

1 천지보은(天地報恩)의 의미

대순사상에서 인간과 하늘의 관계는 천지보은으로 집약됩니다. 인간이 지상천국을 실현할 수 있는 근본 이유는 마음을 통해 천지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道通天地報恩”(도는 천지에 보은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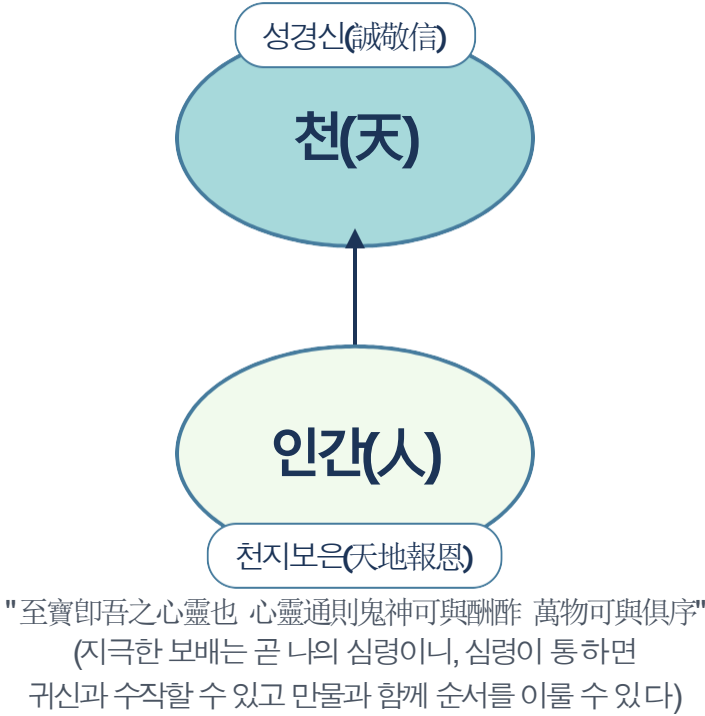
2 천지 성경신(誠敬信)과 인간의 보은

인간의 생명과 수명, 복록은 천지 신명의 성경신(誠敬信)에 의한 것입니다. 인간은 이에 대한 보은을 통해 도통을 이룰 수 있으며, 이것이 인간의 윤리적·우주적 과업이 됩니다.

“생(生)과 수명(壽命)과 복록(福祿)은 천지(天地)의 은혜(恩惠)이니 성(誠)·경(敬)·신(信)으로써 천지(天地) 보은(報恩)의 대의(大義)를 세워 인도(人道)를 다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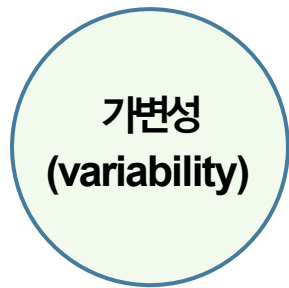
3 신인조화와 해원의 원리

천지보은을 통한 인간과 하늘의 관계 재정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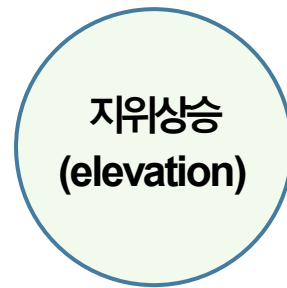
삼계관 재정립의 자생적 근대성

대순사상에서 삼계관(천·지·인)의 재정립은 한국 사유를 기반으로 한 자생적 근대성을 보여주며, 이는 기존 동서양 세계관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합니다.



천계의 가변성

- 고정불변한 천(天)이 아닌 '높은 하늘'이라는 변화가능한 천계 개념
- 구천상제의 인신강세를 통한 천지공사로 천계가 재정립됨
- 서양의 "신은 죽었다"와 달리 "하늘이 늙었다"는 대안적 관점



지계의 지위상승

- 전통적으로 낮은 지위였던 지계(地界)가 천계와 동등한 위치로 격상
- 천존지비(天尊地卑)의 수직적 구조에서 천지공사로 수평적 관계로 전환
- 지상신선(地上神仙)의 실현과 지계의 적극적 가치 재발견



삼계의 호환성

- 천·지·인 삼계가 상호 소통하고 교류하는 열린 체계
- 인간의 조리(調理)와 신명의 기화(氣化)를 통한 계층 간 매개
- 천지인 삼계의 공통 구조와 원리가 해원상생으로 소통 회복

연구 결론 및 현대적 시사점

1 동서양 인간관의 통합적 가능성

대순사상은 동양의 속성론적 인간관(허무적멸이조)과 서양의 실체적 인간관(구성주의) 각각의 한계를 극복하고, 인간·신명·천지의 조화로운 관계를 지향하는 통합적 인간관을 제시합니다.

현대적 의미

- 기술 발전과 인간 정체성 확장에 대한 철학적 토대 제공
- 동서양 문화의 건설적 대화와 융합을 위한 접점 제시

2 포스트휴먼 시대의 인간 위상 재정립

대순사상의 삼계관 재정립을 통해 인간은 단순한 피조물이 아닌 천지와 호환 가능한 우주적 존재로 거듭납니다. 이는 구성주의 인간관의 한계와 환경위기를 초래한 기계론적 세계관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관점입니다.

현대적 의미

- 인간중심주의 넘어선 생태학적 사고의 확장 인공
- 지능과 인간의 공존을 위한 윤리적 토대 제공

대순사상이 제공하는 미래적 가치

삼계관 재정립의 자생적 근대성 측면

가변성

천계·지계·인계의 유
동적 변화 가능성

자위상승

인간과 지계의 우주
적 역할 확장

호환성

천지인 삼계의 상호
작용과 소통

최종 결론

대순사상의 인계관은 유불선과 서양 근대 인간론의 한계를 극복하며, 동양 철학의 자생적 근대성을 통해 실체와 속성을 통합한 새로운 인간·우주 관계의 패러다임을 제시합니다.

참고문헌 및 질의응답

국내 문헌

- 대순진리회 교무부 (2010), 『전경』, 여주: 대순진리회 출판부.
- 김탁 (2006), 『증산 강일순: 한국 신종교의 성립과 발전』, 서울: 민속원.
- 차선근 (2018), 『대순사상의 신관과 인간관』, 대순사상논총, 30집, 1-34.

국외 문헌

- Taylor, C. (1989), *Sources of the Self: The Making of the Modern Identit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Spengler, O. (1918), *Der Untergang des Abendlandes*, Wien: Braumüller.
- Habermas, J. (1981), *Theorie des kommunikativen Handelns*, Frankfurt: Suhrkamp.

고전 문헌

- 『황제내경(黃帝內經)』
- 『주역(周易)』
- 『심경(心經)』

질의응답



논문에 대한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researcher@university.ac.kr
연락처: 010-1234-5678